

내면서사 번역의 가능성: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에 나타나는 자유간접문체를 중심으로

정 하 연
(이화여대)

1. 서론: 현대소설 번역의 중요성

모든 번역은 도착어의 지평을 넓힌다. 출발어의 문화, 어휘, 수사, 문법구조가 번역을 통해 도착어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문학 텍스트의 번역일 경우 새롭거나 낯선 문학적 장치, 서사기법 등을 도착어를 통해 재현해냄으로써 도착어로 집필될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서구문학이 한국어로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시기는 근대 이후인 20세기 초로, 이와 동시에 한글로 소설, 시, 희곡 등의 근대문학 장르들이 집필되기 시작하여 백 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걸쳐 오늘 날에 이르렀다. 서구의 장르가 한국인의 문화와 삶과 의식을 담아내는 당대의 문학적 그릇이 된 것이 오늘 의 현실이지만, 이를 담아내기 위한 도구, 즉 문학어(literary language)로서 한

국어는 여전히 성장단계에 있으며 그 성장에 서구문학의 번역 텍스트가 끼치는 영향은 여전히 지대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현대 영미소설의 서사적 문법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모더니스트 계열 작가군의 대표적 인물인 버지니아 울프의 장편소설 『등대로』(To the Lighthouse, 1927) 국문 번역본 3종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대소설의 서사기법과 문체가 한국어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모더니스트 소설의 서사미학적 요소들을 선명하게 규명해내는 동시에 이를 한국어로 더 적극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과 문학어로서의 한국어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버지니아 울프와 모더니즘 소설 미학

1919년 버지니아 울프는 에세이 ‘현대 소설(Modern Fiction)’에서 아래와 같이 썼다.

우리의 삶은 한 쌍씩 일렬 대칭 형태로 늘어선 전조등이 아니다. 삶은 빛을 머금은 광륜과도 같아서, 우리의 의식이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마치 반투명한 봉투처럼 덮고 있다. 그렇다면 소설가의 과제란 이렇듯 변화무쌍한, 이렇듯 알 수도 없고 경계도 없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담아내는 일이 아닐까!(70)

모더니즘 소설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되는 위의 글은 울프의 서사미학적 매니페스토로 읽을 수 있다. 1차 대전 이후 펼쳐진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불안한 현실을 소설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존 사실주의 기법인 “안정적 시점, 시간 흐름의 연속성, 확고한 정체성(Lee 1997: 18)” 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소설 작법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비전은 이후 발표한 일곱 편의 장편소설들에서 구체적인 서사기법과 문체의 실험을 통해 실천되고 발전되었고, 이로써 울프는 이십세기 영국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남게 되었다.

1) 인용문 필자 번역.

모더니스트 작가로서 울프의 성취는 서구문학의 역사를 서사학적 관점에서 정리해낸 『미메시스』(Mimesis, 1946)의 저자 에리히 아우어바흐에서부터 1970-80년대 모더니즘 소설 연구의 대가들인 말콤 브래드버리와 제임스 맥팔레인, 그리고 피터 포크너 등에 의해 “인간의 내면과 언어를 구성해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Goldman: 131)”한 것으로 규명되어 왔다. 특히 아우어바흐는 “서구문학에 나타난 현실묘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위의 역작을 오디세우스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등대로』의 세밀한 텍스트 분석으로 마치면서 서사미학에서의 울프의 선구적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서사의 시점, 화법 및 목소리, 시간의 기술, 외면과 내면의 의식, 인식론적 관점 그리고 분열성(Goldman 2006: 128)”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작품을 검토한 후, “하나가 아닌 다수의 질서와 해석을 제시하여 중첩, 보완, 부정을 통해 하나의 합성된 우주관(Auerbach 1953: 549)”이라 할 만한 지점에 도달해내는 새로운 서사적 리얼리즘, 즉 모더니즘 미학의 선구자로서 울프를 자리매김했다.

본 연구는 울프의 소설번역에 대한 서사학적(narratological) 고찰로, 울프를 비롯한 모더니스트 소설가들의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서사기법을 아우르는 개념인 “자유간접문체(free indirect style)”에 집중하고자 한다.

자유간접화법²⁾이란 문장 표면에 드러나는 직접화법의 지표(“그가 말했다” 등) 혹은 간접화법의 지표(“-라고 말했다/생각했다” 등) 없이 인물 내면의 의식을 서사의 연장으로 곧장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설의 서사가 “외부적 상황에서 내면의 인식, 혹은 등장인물들 간의 심리적 상호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전환(Fludernik 1993: 73)”하는 효과를 갖는다.

영문과 국문으로 위의 세 화법을 간단하게 구분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직접화법	“I love him,” she said.	“나는 그를 사랑해,” 그녀는 말했다.
간접화법	She said that she loved him.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자유간접화법	She loved him.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2) 영어로 free indirect discourse, 혹은 narrated speech, 독어로 erlebte Rede, 불어로는 discours indirect libre 등의 용어로 통용된다.

화자의 목소리가 서사의 직접적인 매체가 되는 일인칭 소설과는 달리, 위의 예에처럼 삼인칭 서사에서는 화법의 사용이 이야기 밖에 있는 화자와 등장인물 간의 거리를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물이 직접 발화한 말의 직접적 전달자이나 간접적 전달자이나의 이분법적인 거리 설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삼인칭 화자와 등장인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구어적 특성을 더하여 서사의 유연성, 더 나아가 다성성(polyphony)을 구현해낼 수 있는 자유간접화법은 내면 서사를 구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로, 영미문학에서는 심리소설을 개척해낸 제인 오스틴의 18세기 작품들에서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Flavin 1987: 137),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19세기 프랑스 소설에서 인물의 감정과 의식에 더 깊이 들어가 “개인적인 경험의 주관성(subjectivity of private experience)”을 삼인칭소설에서 재현해내는 기법으로 완성되어, 이십세기 초 울프와 제임스 조이스, 마르셀 프루스트, D.H. 로렌스 등의 모더니즘 작가들을 대표하는 내면적 서사기법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Bosseaux 2007: 59). 아우어바흐가 지적했듯이 자유간접화법을 비롯하여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 등은 전 시대의 소설에 나타나지 않은 전혀 생소한 기법들이 아니라 모더니스트 작가들에 의해 새롭게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Auerbach 1953: 535) 점이 주요하며, 이후 한 세기에 걸쳐 유연하고 다성적인 내면 서사로서 현대 소설의 문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미소설에서 나타나는 자유간접화법의 중요성은 데이비드 로지의 『소설의 언어(Language of Fiction, 1966)』, 앤 밴필드의 『말할 수 없는 문장(Unspeakable Sentences, 1982)』 등의 저서에서 서사학적인 접근과 함께 담화분석 등의 언어학적 틀을 통해 본격적으로 설명된 바 있으며(Fludernik 1993: 1), 이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모니카 플루더니크가 1993년 저서 『언어가 만든 소설들, 소설의 언어들』(The Fictions of Language and the Languages of Fiction: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Speech and Consciousness)을 통해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론적 규명을 해내었다. 플루더니크는 방대한 분량의 문학 텍스트와 일상어에서 찾을 수 있는 예를 인용하여 자유간접화법의 용도와 효과의 스펙트럼을 지시어, 시제, 구문(syntax)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표현성, 맥락성, 주관성 등의 특성으로 구분해내어 자유간접화법을 “발화와 의식의 언어적 재현”이라는 폭넓은 개념 안에서 정의 내렸다. 또한 영어와 불어 뿐 아니라 러

시아문학, 더 나아가 일본 소설에서 나타나는 자유간접화법까지 정리해내어 (Fludemik 1993: 102) 역시 인용어미 (quotational suffix)를 사용하여 직/간접화법을 표기하는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플루더니크는 특히 자유간접화법의 용례 분석을 위해 본 연구의 검토 텍스트인 울프의 『등대로』의 본문을 26회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 책에서 인용하는 이 백여 편의 소설 중 단일 작품으로는 가장 많은 용례로, 울프의 자유간접화법의 적극적인 서사적 활용을 입증해준다. 뿐만 아니라 플루더니크의 용례의 분포를 보면 『등대로』에 나타난 자유간접화법의 양상은 인칭 대명사의 모호한 사용, 명령법, 가정법 등을 암시하는 조동사 사용, 감탄문, 불안정한 구문, 문장 수식어(sentence-modifier)의 사용, 도치, 대명사절 주어, 평가 수식어의 사용, 괄호 사용, 심리 서술(psycho-narration), 아이러니의 암시 등으로 매우 폭넓게 관찰된다. 플루더니크의 위와 같은 분석은 본 연구 4장에서 이어질 『등대로』 번역본 텍스트 분석에 주요 근거들을 제공해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진 다이앤 블레이크모어, 비올레타 소티로바, 에릭 런드키스트 등의 모더니즘 서사에 대한 연구들은 자유간접화법 등의 모더니스트 기법을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자유간접문체(free indirect style)”로 묶어내고 있다(Blakemore 2013: 579; Sotirova 2010: 132; Rundquist 2014: 160). 런드키스트에 의하면 자유간접문체란 “간접화법의 특징들(삼인칭, 과제 시제)을 직접화법의 특징들(인물 중심의 지시서, 표현적 구문, 주관적 어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며, 수 백년 동안 학자들이 이 개념을 “화법”의 분류법 안에서 연구해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의식의 층위를 재현”해내는 방식 전반으로 확대되어 기존의 정의에 자유간접사유(free indirect thought), 인식재현 (represented perception), 심리서술(psycho-narration) 등의 세 가지 하위 분류를 더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자유간접화법의 언어학적 측면에 치중해왔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서사학적인 맥락 안에서의 의미론적인 접근이 좀 더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Rundquist 2014: 160).

리얼리즘의 관습을 깨고 새로운 표현법을 모색한 모더니즘 서사기법은 혁명에 가까운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십세기 문학 전반을 변화시켜 오늘날의 현대소설을 만들어냈다. 즉 자유간접문체의 연구는 울프를 비롯한 당대 다른 대가들의 작품을 읽어내기 위한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소설의 미래를 살

피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울프의 소설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어야 할지를 살피는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출판되는 소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구 현대소설을 더 잘 읽어내고 번역해내기 위한, 더 나아가 한국어 소설의 서사학적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3. 자유간접문체의 한국어번역 연구

그렇다면 현대 서구소설을 구성하는 중요한 서사학적 특징인 자유간접문체는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왔고, 어떻게 번역되어야 할까? 이 명제를 다루는 선행 연구는 아쉽게도 많지 않으며, 언어별 비중은 불한번역에 치중되어 있다.

2.1 자유간접화법의 불한 번역 연구

박선희의 2011년 논문 ‘자유간접화법의 번역 이론 비교 고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듯이, 국내에서 자유간접화법 번역 관련 연구는 2001년 이후에 등장하며, 강이연, 전성기, 장인봉, 박선희 등 프랑스 문학 및 프랑스어 번역 전공자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 연구의 성취는 1) 소설에서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 2) 한국문학에서 관찰된 자유간접화법의 용례 소개 3) 자유간접화법 번역시 직접화법 혹은 간접화법으로의 변환 양상 포착 4) 자유간접화법의 정확한 번역의 중요성 피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대안번역을 통해 자유간접화법을 한국어로 그대로 충실하게 옮기더라도 맥락 상 그 효과가 원문과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박선희 2011b: 77-8) 자유간접화법 번역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큰 성취로 볼 수 있다.

한편, 위에 언급된 연구들에서 검토 대상 텍스트는 플로베르의 『보바리부인』 한 편을 중심으로 근대 초기 프랑스 소설에 국한되어 있어, 자유간접화법이 더욱 증폭된 양상으로 문체 전반에 사용된 모더니즘 서사미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연구가 필요한 텍스트들이 프랑스문학에도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하며, 무엇보다 위의 연구들이 대상 텍스트 전반에 걸친 “두터운

(thick)” 검토가 아닌, 몇 개의 용례들에 국한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이들 연구가 묻고 있는 명제는 자유간접화법이 한국어로 구현 가능한가 아닌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자유간접화법을 한국어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라는 명제로 발전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들이 나아가야 할 지점은 좀 더 포괄적이고 폭넓은 자유간접화법 번역 방법의 제시라는 점을 시사한다.

위의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연구 외에도 알베르 까뮈의 1인칭 소설 『이방인』 번역본에 나타난 자유간접화법을 비교한 전명수의 ‘현대불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번역’과 현대문학이 아닌 17세기 프랑스 우화시의 번역을 다룬 김종로의 ‘라퐁텐의 자유간접화법과 번역’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역시 모더니즘 3인칭 소설의 주요 서사기법으로서 포괄적인 자유간접문체와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자유간접화법의 용례와 번역 분석, 대안 제시 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한국어에서 자유간접화법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명수의 논문은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에 종결어미가 가장 큰 고민 요소임을 네 편의 번역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해내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가 탐색하고 있는 명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영미소설 번역 관련하여 자유간접화법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영미권의 작품이 현재 한국에 출간되고 있는 번역소설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외의 현상이었다. 또한 버지니아 울프 관련 연구에서도 그녀의 소설에 대한 서사학적 탐구 자체가 국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03년과 2005년 사이 국내의 버지니아 울프 연구동향을 살핀 김영주의 글에 의하면 울프와 모더니즘 미학을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나, 여기서 모더니즘 미학은 문체를 아우르는 서사학적 담론과는 연결되지 않는 추상적 상징 혹은 서사구조 해석 차원의 미학 담론이며, 그 외에는 울프의 텍스트에 대한 여성주의적, 문화비평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266). 이는 영문학 연구 안에서 서사학 자체가 주된 담론이 아니어서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나, 거의 한 세기 동안 서사학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친 작가인 울프를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한 연구는 국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러한 연구의 부재가 이어지는 4장에서 살펴볼 번역의 제문제들과 직결된다고 보인다.

필자는 앞서 J.M. 쿿씨의 포스트모던 소설 번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주

한 국문번역 전략에 대한 의문점들을 서사학적, 문체론적 관점에서 풀어내면서 (Jung 2012: 164-165) 이를 현대 영미소설사의 맥락 안에서 되짚어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즉, 본 연구는 오늘날 현대문학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 작품들의 서사학적 모태가 된, 모더니즘 글쓰기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는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2.2 한국문학에서의 자유간접화법 연구

국내에서 자유간접화법 번역 연구가 산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어문학에서 자유간접문체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현실에 있을 것이다. 자유간접화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지극히 소수로, 2007년 유제호가 판소리의 서사구조를 전달화법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직접화법 중심의 서사 속에서 부분적이거나 자유간접화법의 요소들을 찾아내어 한국 전통 서사에서의 구어체와 화법 연구에 중요한 기점을 마련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향후 필요한 연구로 “한국어 구어 중심으로 서술 및 전달화법 관련 용어법과 이론의 재정립(29)”을 주문하면서 국외의 화법 및 담화 연구의 진전에 비해 국어국문학계에는 이론적으로 “적잖은 공백과 한계(29)”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은 계간 『시작』이 ‘한국시와 자유간접화법’을 특집 주제로 꾸민 2014년 겨울호에서도 확인이 된다. 자유간접화법을 “근대의 주체 분열에 대한 문학의 응수(염인수 2014: 10)”로 규정하면서 서구 서사미학에서의 개념 정리를 해당 특집의 네 편의 글 모두 정확하고 유려하게 풀어내고 있지만, 한국어에서 자유간접화법이 문법적으로 그리고 통사적으로 어떻게 구사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하림, 황병승, 채상우 등 현대 한국 시인들의 작품들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직접화법을 통한 시점전환, 즉 직접화법의 연장선으로서의 다수의 화자의 “다성성과 혼중성(장철환 2014: 77)”의 개념과 자유간접화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은(고봉준 2014: 47) 한국어 자유간접화법 연구의 현 단계에서 어찌면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설명했듯이 자유간접화법은 직접화법, 즉 구어체와 간접화법, 혹은 문어체의 일부인 요약문(summarized discourse)의 경계에 있는 서사기법이

기에, 한국어 텍스트에서 자유간접화법 구사법을 규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문학에서 구어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서구문학에서는 소설장르가 50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진화하는 과정에서 근대 문학 이후 문어체와 구어체의 일치가 이루어졌기에 자유간접화법을 통한 유연한 다성성 구사가 자연스럽게 발전된 반면, 한국어에서는 근대문학 형성기에 “~쓰다” 종결어미가 소설 서사문법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후 구어체 문장이 직접화법 외에 큰 역할을 맡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을 비롯하여 소설에서의 구어체의 중요성에 대해 양문규는 2013년 저서 『한국 근대소설의 구어전통과 문체 형성』에서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서 문학어로서 한국어의 지평 확장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근대소설이 “서구소설을 모방하고 이를 정착시킴으로써(9)” 형성된 과정을 꼼꼼하게 짚어 내면서, 판소리문학과 조선 후기 국문소설의 문체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던 한국어 구어체의 전통이 근대 계몽기 언문일치 운동을 통해 말과 글을 일치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문어를 대신한 새로운 문어를 만드는 측면을 갖고(15)” 있었으며, 그 결과는 “구미-일본어의 번역체를 합성하여 만든 신식 문언(15),” 즉 당시 “지식인들이 주도한 또 하나의 예쁘리뛰르(글쓰기)의 창조(15)”였다고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대소설 서사에서 김동인에 의해 “~쓰다’ 종결어미와 ‘그’라는 인칭대명사(18)”로 정리되는 소설 언어로 구현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지배적인 한국어 소설 서사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동시에, 구어체는 문학어의 주변으로 몰리게 되었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어체의 전통을 글쓰기에 접목시켜온 박태원, 채만식, 김유정 등의 근대작가들의 텍스트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서구를 수용하면서도 서구를 억압이 아닌 자기 변형의 유연하고 창조적인 통로로 간주하며, 전통적 경험 역시 상실하지 않고 자 한 소설적 노력들(385)”로 재평가하면서 한국어에서 구어체의 역할을 되살려낸 “새로운 문체의 성립을 논증(385)”해내고 있다. 방언, 의성어/의태어, 대중의 구어, 속담, 민담 등 다양한 구어전통의 요소들을 통한 텍스트 분석이 풍부하고 유연한 일상어의 문학적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구어체의 국문번역의 접목에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유간접화법을 비롯한 화법 분석과는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모더니즘 소설은 독자적인 스타일과 형식미를 강조하지만 이야기의 모태로부터 절연되면서 결국 서

사문학의 생명을 잃어버린다(400)”라는 서구 모더니즘의 서사미학에 대한 일반화 혹은 단순화의 오류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바흐찐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소설과 현실의 관계에서 “말이나 의식에 대한 묘사(401)”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자유간접화법 관련 모든 연구에서 공통으로 참고하고 있는 바흐찐의 성취, 즉 서구문학 전통에서 다성성을 기반으로 한 자유간접화법의 규명을 아쉽게도 놓치고 있는 것이며, 한국어 구어체가 문학어로서, 소설어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2.3 보소의 『등대로』 자유간접화법 영불번역 연구

위에서 살펴봤듯이 자유간접화법의 영한번역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 문헌은 샬롯 보소(Charlotte Bosseaux)가 버지니아 울프 소설의 프랑스어 번역본들을 자유간접화법을 비롯한 시점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2007년 출간한 『어떤 느낌인가?: 번역에서 시점의 문제』(How Does It Feel?: Point of View in Translation)이다. 이 연구는 『등대로』의 불역본 3종과 『파도』(The Waves) 불역본 2종에 대한 서사학적 관점의 번역 분석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코퍼스 구축을 통한 번역비교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보소의 연구의 출발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번역자의 가시성(visibility)으로, 이를 소설번역에서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설 텍스트의 “느낌/결(feel)”을 결정하는 시점(point of view)의 문제가 번역문에서 어떻게 반영, 구현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서사학자 폴 심슨의 개념을 빌려 설명하고 있다. 이어 저자는 다수 서사학자의 이론을 종합하여 서사에서 시점을 구성하는 요소로 시공간적 화자(deixis), 화자의 양태(modality), 타동성(transitivity) 그리고 발화와 의식의 재현(speech and thought representation) 네 가지로 정리해내면서(27), 대상 텍스트에서 두드러지는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번역자가 시점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내고 있느냐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68). 분석 대상인 울프의 두 소설 중 『등대로』는 앞서 본 연구의 2장에서 언급한 플루터니크를 비롯하여 다수의 학자들이 발화와 의식의 재현을 중심으로 연구해온 바 있으며, 그 중 특

히 자유간접화법의 적극적인 사용이 두드러져 이를 주요 분석 요소로 결정되었다고 보소 역시 설명하고 있다(68). 특히 저자는 도리트 콘, 존 깰리거 등의 연구를 통해 “자유간접화법의 번역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혼종형태의 화법으로 번역의 과정에서 발화의 균질화(homogenisation) 경향이 관찰(67)”됨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번역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자유간접화법의 이중성을 강조 하면서, 직접화법 혹은 간접화법으로 서사기법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번역(67)”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등대로』의 번역본 비교를 통해 직접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보소의 『등대로』 코퍼스 분석은 1929년, 1993년, 1996년 출간된 불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하며, 감탄사, 의문부사, 시간부사, 조건 조동사, 추측 혹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부사 등을 자유간접화법의 지표로 삼아 정량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원문에서 총 162개의 자유간접화법(FID) 문장이 탐지되었으며, 각 번역본의 번역 양상은 아래와 같은 통계로 정리되었다(141).

〈표 1〉 보소의 『등대로』 자유간접화법 영불번역 양상 분석

	FID	FID 약화됨	간접화법	직접화법
Woolf (1927)	162	n/a	n/a	n/a
Lanoire (1929)	152	22	4	6
Merle (1993)	162	11	n/a	n/a
Pellan (1996)	162	6	n/a	n/a

해당 연구에서 선택한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에 울프의 자유간접화법이 1929년 번역본에서는 일부 약화되거나 간접 혹은 직접화법으로 변형시키는 균질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견되었으며, 가장 최근 번역본인 1996년 프랑스와즈 뵈랑의 역서는 자유간접화법의 약화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소의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영어와 불어에 비해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훨씬 큰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자유간접문체 번역에 있어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다음 장의 국역본 비교분석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등대로』 번역본 비교분석과 자유간접문체 번역의 가능성

울프가 1927년 출간한 『등대로』는 삼인칭 과거시제로 서술된 장편소설로 “Window(창, 122쪽),” “Time Passes(시간이 흐르다, 20쪽),” “The Lighthouse(등대, 64쪽)” 등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1장에서 램지 가족이 별장에서 보낸 여름휴가 중 한 나절을 가장 중심인물인 램지 부인을 비롯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시점을 통해 그린 후 2장에서는 모두가 떠난 별장을 묘사하면서 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1장의 인물들이 겪는 전쟁, 죽음 등을 요약해서 서술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등장한 인물 중 몇 명이 십 년 후 다시 별장을 찾아 1장에서 여섯 살짜리 아들 제임스가 가고 싶어 했으나 못 갔던 등대를 찾는다. 이 작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면에서 모더니즘 서사기법을 완성시킨 기념비적 소설로, 자유간접문체의 다양한 양상과 스펙트럼을 거의 모두 보여주고 있어 출간 당시 더 타임즈의 서평에서 “소설이 얼마나 신축적(elastic)일 수 있는지(Beja 1970: 74)” 보여준다고 평가 받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할 『등대로』 번역본 3종은 각각 2003년(1996년 출간본의 개정판), 2013년, 2014년에 출간된 역서로, 국내 버지니아 울프 전공자들이 간행위원으로 참여한 울프전집을 비롯하여 주요 출판사들이 펴낸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의 일환으로 나온 비교적 최근 번역본들이다.

앞서 소개한 보소의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자유간접화법 지표를 기준으로 코퍼스를 구축한 반면, 본 연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연구자가 직접 원문 텍스트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유간접문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판단되는 문장들을 코퍼스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연구는 영어 모더니즘 소설 번역 관련 초기 단계의 포괄적인 분석이며, 둘째, 영어와 불어에 비해 훨씬 형태적, 구조적 거리가 먼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번역을 다루기에 표면적 지표들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번역을 분석하기가 어려우며, 그리고 셋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작품은 의식의 깊은 층위를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유간접문체를 통해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포착해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표면적 지표가 드러나는 자유간접화법뿐 아니라 자유직접화법, 심리서술, 내적 독백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유간접문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 기법들은 많은 경우 표면적 지표 없이 “맥락적,

의미적, 통사적, 어휘적 단서, 혹은 이러한 단서들의 조합을 통해(Bosseaux: 58) 드러나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와 판단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특정 어휘 혹은 구문을 지표로 입력하여 코퍼스를 추출하는 대신 저자와 연구원 2명이 팀을 이루어 위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문장/문단들을 『등대로』의 원문 중에서 선정, 취합하여 총 117개의 발췌 텍스트와 이에 상응하는 3종의 번역문으로 이루어진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4.1 텍스트 세부분석 샘플

아래는 『등대로』 1장의 하이라이트인 만찬 장면의 한 대목으로, 뒤에 본 연구의 비교분석 텍스트인 번역본 3종의 해당 부분이 이어진다.

“It is a French recipe of my grandmother’s.”[DD]³⁾ said Mrs Ramsay, speaking with a ring of great pleasure in her voice. Of course it was French.[FID] What passes for cookery in England is an abomination[FDD] (they agreed). It is putting cabbages in water. It is roasting meat till it is like leather. It is cutting off the delicious skins of vegetables.[FDD] “In which,” said Mr. Bankes, “all the virtue of the vegetable is contained.”[DD] And the waste[DD], said Mrs Ramsay. A whole French family could live on what an English cook throws away.[FDD] (Woolf: 100-1)

“할머니의 프랑스 요리 레시피예요.” 목소리에서 크나큰 즐거움이 울려 퍼지게 하면서 부인은 말했다. 1)물론 프랑스 요리였다. 소위 영국의 요리라는 것들은 형편없다. (그들은 모두 이에 동의했다.) 영국 요리는 양배추를 물에 담근 것이고, 고기를 가죽같이 될 때까지 익히는 것이며, 맛있는 야채 껍질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 속에 야채의 영양소가 다 들어 있는데” 하고 뱅크스 씨가 말했다. 또 그 낭비라니, 부인이 말했다. 프랑스 가정의 온 식구가 영국의 요리사 한 사람이 버리는 것으로 실컷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니까. (T1: 188)

3) 4장의 분석에서 직접화법은 DD(direct discourse)로, 간접화법은 ID(indirect discourse), 자유간접화법은 FID(free indirect discourse), 자유직접화법은 FDD(free direct discourse) 등으로 표기한다.

「할머니의 프랑스식 요리법이에요.」 램지 부인의 말소리에는 기쁜 울림이 들어 있었다. 2)물론 프랑스 요리지, 영국에서 요리로 통하는 것은 사실 형편없다고, 그들 모두 동의했다. 영국 요리란 그저 양배추를 물에 삶고 고기를 가죽처럼 뻗뻗해질 때까지 굽는 것뿐이었다. 게다가 채소의 맛난 걸 껍데기는 다 벗겨 버리고, 「바로 거기에 채소의 모든 양분이 다 들어 있는데 말입니다.」 뱅크스 씨가 말했다. 그런데 그냥 내버린다고, 램지 부인이 말했다. 영국 요리사가 내버리는 것만으로도 프랑스 가족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었다. (T2: 136)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프랑스 요리법이에요.” 램지 부인은 큰 기쁨이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3)물론 그것은 프랑스식 요리였다. 영국에서 요리로 통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동의한 대로) 혐오스럽기 그지없다. 물에 그저 양배추를 삶고, 고기가 가죽처럼 질겨질 때까지 굽고, 채소의 맛있는 껍질을 깎아 버리는 것이다. “껍질 안에 채소의 영양소와 맛이 다 들어 있는데 말입니다.”라고 뱅크스 씨는 말했다. 그리고 음식 낭비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램지 부인이 대답했다. 영국인 요리사 한 명이 낭비하는 재료의 양은 프랑스의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다. (T3: 162)

원문과 연결시키기 전에, 일단 세 개의 번역본 사이에서 관찰되는 주요한 차이점은 무엇보다 화법이다. 같은 문장인데 하나의 버전은 직접화법, 하나는 일반 서사문으로 구사되기도 하고, 하나의 버전은 간접화법인데 하나는 직접화법으로, 혹은 구어체의 결이 세 경우 모두 다른 층위의 양태(modality)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세 개의 번역본이 모두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화법의 스펙트럼을 구현하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원문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원문의 DD의 경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명확한 DD 두 문장은 세 개의 번역문에서 모두 DD로 재현되고 있고, 사용된 직접화법의 어미들도 “~예요”와 “~입니다”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세 번째 DD ‘And the waste’는 따옴표도 없고, 문장이 아닌 구, 즉 구어적 단편(fragment)으로, T1은 직접화법 구로, T2는 직접화법 절로 번역하고, T3는 간접화법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 또한 번역문의 구조는 모두 다르지만 밑줄로 표시한 것처럼 구어체적 결을 더해주는 요소들은 모두 적극 활용하여 발화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고 있다.

다음 살펴볼 FID와 FDD는 훨씬 다양한 번역 양상을 보인다. ‘Of course it was French’에서 일단 대표적 자유간접화법 지표 중 하나인 구어적 관용구 ‘of course’로 앞서 직접화법으로 전달되었던 램지 부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문장임을 나타내지만, 과거시제 was로 인해 직접화법이 아닌, 삼인칭 화자가 개입한 자유간접화법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직접화법과 서사의 중간 성격의 이 문장은 한국어 번역에서 어떻게, 즉 얼마나 구어체에 혹은 서사문에 가깝게 재현되어야 하는가? T1의 ‘물론 프랑스 요리였다’ T2의 ‘물론 프랑스 요리지,’ T3의 ‘물론 그것은 프랑스식 요리였다’을 비교하면 한국어는 직접화법과 서사문이 슬어의 어미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T2는 명백한 구어체, T1과 T3는 명백한 문어체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자유간접화법은 어떻게 구사되어야 하는가? 즉, 램지 부인의 말투가 반쯤 반영되지만 램지 부인이 직접 발화한 그대로의 형태가 아니라 삼인칭화자를 걸쳐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효과를 근대소설 이후 굳어진 국문서사 어미의 표준 ‘~쓰다’를 사용하여 구사할 수 있을까?

위의 발췌 원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D, 즉 자유직접화법은 앞서 설명했듯이 표면적으로 직접화법임을 알려주는 ‘말했다’ 등의 동사, 따옴표, 쉼표, 하이픈, 등등의 지표 없이 전달되는 직접화법으로, 독자가 직접화법의 목소리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해해야 한다. 위에 나오는 다섯 문장의 FDD는 현재시제의 사용으로 인해 FID와 구분되어, 램지 부인이 직접 발화한 그대로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T1에서는 앞의 FDD 네 문장은 ‘~쓰다’ 종결어미 혹은 ‘~고’ 연결어미로, 마지막 문장은 구어체 ‘~니까’로 마치고 있다. T2는 세 문장은 ‘~다고’로, 둘은 ‘~쓰다’ 종결어미로, T3는 두 문장은 연결어미 ‘~다고’로, 셋은 ‘~쓰다’ 종결어미로 마치고 직접화법의 구어적 요소가 ‘그저’ 정도 외에는 없어, 서사문처럼 읽힌다.

세부적 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은 세 번역본 모두 DD의 번역에 대한 일관적인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FID나 FDD는 동일한 번역자가 작업한 동일한 문단 안에서도 다양한 전략을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딜레마는 번역자가 화법을 어떻게 읽어내는가의 문제와 함께 한국어의 구어체와 문어체로 이분화된 어미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구어체 어미 안에서도 그 선택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를 어떻게 발화의 톤, 화자의 목소리 등에 맞춰 구사하는가는 화법의 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번역자들에게 큰 숙제를 안겨준다. 코퍼스에서 이와 관련된 예를 하나 소개하자면 3장 두 번째 섹션 끝에 화가 릴리가 램지 씨의 얼굴에 대해 마음속으로 내뱉는 ‘An extraordinary face(156)’라는 서술독백(NM)이 나온다. 구로만 이루어진, 감탄문의 단편인 구조인데 T1의 번역은 ‘참으로 이상한 얼굴 인지고(287),’ T2는 ‘참 대단한 얼굴이라니까!(206)’ T3는 ‘얼마나 특별한 얼굴 인가!(256)’로 나타난다. 모두 내면 독백의 구어체를 살리는 전략을 공통으로 택했으나, 단어 선택은 차치하고 세 개의 다른 감탄 종결어미가 매우 다양한 톤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는 이 외에도 ‘~라니,’ ‘~이여,’ ‘~쓰나’ 등등 무수한 감탄어미가 있어서 영어 원문에서는 ‘관사+형용사+명사’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가 번역자에게 이렇듯 어려운 선택의 문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다룬 발췌문단은 보소의 연구에서도 샘플로 분석되고 있는데(140-52) 3종 중 하나의 불역본에서 위의 FID 문장을 좀 더 설명적으로(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이 요리법은 프랑스식일 수밖에 없다”) 풀고 있고, 나머지 두 번역본은 어순은 약간 다르지만 램지 부인의 말투를 원문에 가깝게 반영하여 FID를 살려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정량적 분석에서 나타난 낮은 FID의 화법전환/약화의 비율에 비춰 볼 때에 위의 원문 텍스트에서 보이는 다양한 층위의 의식 재현을 번역자가 정확하게 읽어내기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화법을 읽어내고, 이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도 그 결정을 텍스트에서 영어와는 구조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언어로 구현하고 다듬어내기 위한 고충이 새로 시작되는 한국어 번역자들의 작업의 복잡함과는 비교하기 힘들 것이다.

4.2 번역전략 중심의 통계적 비교 분석

앞서 본 발췌문 샘플의 세부분석을 통해 울프의 자유간접문체의 국문 번역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살폈다면, 본 연구에서 구축한 코퍼스의 포괄적인 검토를 위하여서는 이러한 양상의 통계적 분포를 추출하였다. 통계 분석 기준

은 보소의 영불번역 코퍼스 분석을 모델로 삼되, 본 연구의 코퍼스 구축 기준을 감안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보소의 분석에서는 코퍼스가 구체적인 자유간접화법 지표 설정을 통해 구축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넓은 범주의 자유간접문체(FIS)를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았고, FIS의 충실한 구현 혹은 약화를 감지하는 기준은 FIS에 사용된 쉼표, 세미콜론 등의 구두법(punctuation), 어휘, 대명사, 리듬 등 원문의 모호성과 구어체적, 운문적 특성을 위한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는지 아닌지에 두었다. 또한 여기에서 FIS의 약화는 대체적으로 FIS를 문어체적 서사문(narration)으로 재편하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FIS의 구어체적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직접화법으로의 변형을 세 번째 항목으로 추가했다. FIS의 간접화법으로의 변형은 한국어의 간접화법의 문법적 구조와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큰 기준으로 제시하기가 무리였고, 이 역시 서사문에 가까워지는 변형이므로 소수이지만 관찰된 경우 FIS 약화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해서 전체 코퍼스를 FIS의 구현 혹은 약화, FIS의 직접화법으로 변형 등 세 개의 항목으로 통계를 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등대로』 국문본 3종 자유간접문체 번역양상 분석

	FIS 구현	FIS 약화	FIS -> DD
울프 (1927)	117	n/a	n/a
T1 (2003)	45	37	15
T2 (2013)	55	15	35
T3 (2014)	46	26	33

위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도출해내고자 한 가장 중점적인 사안은 울프의 번역자들이 전반적으로 자유간접문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번역하기 위해 주로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었다. 우선 117개의 FIS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전략이 세 개의 번역본 모두 45회에서 55회에 이르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세 번역본이 울프의 자유간접문체의 중요성을 미약하게나마 모두 인식하고 있고, 이를 번역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보소의 영불번역 분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빈도이지만,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그 빈도가 세 편 모두 비슷

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세 개의 번역본이 FIS 번역에 대해 크게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기보다는, FIS의 중요성은 인식하되 이를 한국어로 구현하는 적절한 구체적인 방식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FIS의 약화, 즉 구어적인 요소를 문어적 서사문으로 대체하는 양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T1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FIS의 구어적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직접화법으로의 변형은 더 최근 번역본인 T2와 T3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FIS를 문어체와 구어체의 스펙트럼의 중간 경계지점에 놓지 못하고 양 극단을 오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 번역본의 분석지표 항목별 수치의 합계가 FIS 원문의 총합인 117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앞서 4-1의 세부분석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번역전략이 일관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선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이다. 보소의 영불번역 분석과는 달리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번역전략의 모든 경우를 아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등가성 지표를 기준으로 전산화할 통해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서사기법의 문법적 등가성을 정리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앞으로 수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밝히고자 하는 점은, 위의 분석은 번역본의 평가보다는 번역전략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피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는 특히 4-1에서 살펴본듯이, 동일한 번역전략을 따른다고 해도 해당 전략의 구체적인 구현방식은 다양하고 매우 편차가 큰 동시에, 한국어에서는 종결어미라는 요소 때문에 영어에서처럼 자유간접화법을 입말과 글말의 경계에서 유연하게 구현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그러므로 위의 통계를 기반으로 어떠한 수치가 더 우수한 번역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짓기는 힘들며, 또한 위의 수치를 보면 FIS 구현 빈도의 경우 세 개의 번역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위의 통계가 보여주는 하나의 명백한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어에서 자유간접문체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세 번역본 모두 현재의 한국어 소설 서사기법의 관습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제한된 문장들로 영어 자유간접문체의 재현이 수월하지 않다는 딜레마를 공유하면서 한국어 구어체와 문어체의 스펙트럼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자유간접문체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

자유간접문체의 정의를 다시 상기해보자면, 이는 소설의 서사문(narration)의 틀에 직접화법, 즉 구어적 요소를 가미하여 구사하는 문체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볼 때에 근대화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된 한글 문어체에 비해 오천 년 동안 일상어를 통해, 또한 구비문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온 한국어 입말이 훨씬 다양한 표현력과 유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학어로서 한국어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손꼽히는 풍성한 의성어, 의태어 모두 구어에 기반한 어휘이고, 앞서 언급한 종결어미의 경우 숫자적으로 문어체 어미와 구어체 어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어체의 표현력은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근대 이후 소설서사에서 변방으로 밀려난(양문규 2013: 15) 구어전통의 적극적인 활용이 영미소설의 자유간접문체 번역에, 더 나아가 한국소설의 서사문체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이는 다성성과 혼종성을 사용하여 내면의 서사를 가능하게 한 모더니즘 소설미학의 발전과정과 다르지 않다.

우선 본 연구의 코퍼스에서도 딱딱한 서사문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문체 개발의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조동사 *could*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FID 문장인 “This core of darkness could go anywhere, for no one saw it. (Woolf 1919: 62)”의 T3 번역문은 서사문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램지 부인의 목소리를 시적 리듬과 유연하고 운율적인 구문 구성을 통해 구어적 색채를 담아내고 있다. “이 어둠의 응어리는 누구도 볼 수 없기에 어디라도 갈 수 있었다.” 이 번역의 성취는 T1(“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핵심은 갈 수 없는 곳이 없었다.”)과 T2(“이 어둠의 핵심은 어디든 갈 수 있었다.”)의 문어적이고 산문적인 문체에 비교해볼 때에 더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어 입말의 대표적인 특성인 주어 생략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은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다.

“Like a work of art,” she repeated, looking from her canvas to the drawing-room steps and back again. She must rest for a moment. And, resting, looking from one to the other vaguely, ... [중략] (Woolf: 161)

「마치 예술 작품처럼. 그녀는 캔버스와 거실 앞 계단을 번갈아 바라보며 되뇌었다. 잠시 쉬어야 했다. 그렇게 쉬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노라니,
(T2: 211)

원문의 밑줄 친 문장에서 조동사 *must* 역시 전형적인 자유간접화법 지표로, 이 문장의 구어적 색채를 T2에서는 주어 “그녀”를 생략함으로써 구사하는 동시에, 문어체 과거시제 종결어미 “~쓰다”를 사용하여 자유간접화법의 경계성/양면성을 구현한다. T1과 T3의 경우 모두 “그녀”라는 주어를 넣어서 간단한 문장이지만 훨씬 더 길고 깊은 내면서사로 들어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효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두 예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자유간접문체의 구어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종결어미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어 종결어미를 사용하면 도리어 자유간접화법이 직접화법으로 바뀌는 역효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4-1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4-1의 자유간접화법의 예인 “Of course it was French”를 ‘물론 프랑스 요리였다(T1),’ ‘물론 프랑스 요리지(T2),’ ‘물론 그것은 프랑스식 요리였다(T3)’ 외에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종결어미 “~쓰다”를 유지하되, 위의 예들에서 본 리듬감, 대명사 생략 등을 비롯한 다른 문장요소들을 더 구어적으로 다듬어내어 램지 부인의 태도와 톤을 더 선명하게 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물론”은 원문에서 FID의 지표로 작동하는 “of course”만큼 구어적인가, 또는 이 구문의 유일한 번역인가?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문학은 항상 관습을 벗어나려는 시도이고, 이는 내용만이 아니라 문체를 포함한 형식에도 적용된다. 형식은 곧 의미이기 때문이다(Bennett: 17). 모더니즘 소설의 형식은 내면 서사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일 뿐 아니라 언어화된 내면 그 자체인 것이다. 가장 익숙한 소설의 언어가 아닌 분절되고, 혼종적이고, 다성적인 언어로 써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고, 이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입말의 운율적, 구문적 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반영하는 구어체의 지속적인 실험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국어 서사문체를 좀 더 증폭시키고,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아름답게 훼손시키면서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고자 한국어와 씨름하는 작가들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내면서사 문체의 확장을 위하여

모더니즘 소설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취는 표면적 사건 중심의 서사에서 인간 내면의 이야기로 파고 든 것이다. 이로 인해 소설은 개인의 각자 다른 고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드러내는 가장 인본주의적 시도가 되었다. 곧 인간 내면의 목소리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가 모더니즘 문장이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서사기법은 자유간접문체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영국 모더니즘 소설인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의 국문번역본 3종을 자유간접문체 코퍼스 구축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여 자유간접문체의 한국어 번역이 아래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1. 세 개의 번역본 모두 자유간접문체를 번역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한 경우는 50%가 넘지 않았다.

2. 세 개의 번역본 모두 자유간접문체를 직접화법이나 서사문으로 변형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3. 세 개의 번역본 모두에서 자유간접문체를 한국어로 구현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전략을 찾기 힘들었고, 종결어미 활용을 통한 구어체 구사 등 몇 가지 제한된 방법을 뒤섞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발적이고 제한적이거나 3종 모두 번역자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 한국어 구어체의 윤율적, 통사적, 구문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서, 한국어에서 자유간접문체의 다성성과 혼종성을 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앞으로 한국어 구어체의 스펙트럼을 면밀하게 규명하여 이를 자유간접문체 번역에 활용할 방안과 기준을 구축한다면, 이를 통해 한국어 내면서사 문체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한국어 글쓰기는 아직 젊다. 근대의 한국어 문장은 번역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번역이 한국어의 성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다.

참고문헌

- 고봉준 (2014) 「‘주체’에서 멀어지는 소리들-최근 시의 자유간접화법에 대하여」, 『시작』 13: 39-56.
- 김종로 (2003) 「라퐁텐의 자유간접화법 번역」,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편저), 『번역의 이론과 실재』,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259-289.
- 김영주 (2006) 「버지니아 울프 다시 읽기: 버지니아 울프 국내 연구동향」, 『안과 밖』 4: 252-68.
- 박선희 (2011) 「자유간접화법의 번역이론 비교 고찰」, 『통번역학연구』 14(2): 137-58.
- 박선희 (2011) 「자유간접화법의 불한 번역에서 다음성 재현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12(3): 55-82.
- 양문규 (2013) 『한국 근대소설의 구어전통과 문체 형성』, 서울: 소명출판.
- 염인수 (2014) 「근대의 주체 분열에 대한 문학의 응수」, 『시작』 13: 9-38.
- 장철환 (2014) 「자유간접화법」과 텍스트의 주기율표: 채상우론, 『시작』 13: 57-79.
- 전명수 (2004) 「현대불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번역」, 『아세아문화연구』 8: 213-33.
- 전성기 (2005) ‘Le Style Indirect Libre en coreen’, 『프랑스어문교육』 20: 243-77.
- 정명희 (2011) 「『등대로』: 상관적 사고의 내러티브」, 『외국문학연구』 42: 159-85.
- Auerbach, Erich (1953) *Mimesis: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translated by Trask, W.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ja, Morris (1970) *Virginia Woolf: To the Lighthouse*, London: Macmillan.
- Bennett, Joan (1964) *Virginia Woolf: Her Art as a Noveli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kemore, Diane (2013) ‘Voice and Expressivity in Free Indirect Thought Representations: Imitation and Representation’, *Mind & Language* 28(5): 579-605.
- Bosseaux, Charlotte (2007) *How Does It Feel?: Point of View in Translation – The Case of Virginia Woolf into French*, Amsterdam-New York: Rodopi

- Flavin, Louise (1987) 'Mansfield Park: Free Indirect Discourse and the Psychological Novel', *Studies in the Novel* 19(2): 137-23.
- Fludernik, Monika (1993) *The Fictions of Language and the Languages of Fic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oldman, Jane (2006)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Virginia Woolf*,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ung, Ha-yun (2012) 'Keeping Proper Distance: The Question of Aesthetics in Translating English Narratives into Korea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3(3): 163-86.
- Lee, Hermione (1997) *The Novels of Virginia Woolf*, London: Methuen.
- Rundquist, Eric (2014) 'How Is Mrs Ramsay Thinking?: The Semantic Effects of Consciousness Presentation Categories Within Free Indirect Style', *Language and Literature* 23(2): 159-74.
- Sotirova, Violeta (2010) 'The Roots of a Literary Style: Joyce's Presentation of Consciousness in *Ulysses*', *Language and Literature* 19(2): 131-49.
- Woolf, Virginia (1919) 'Modern Fiction', in Morris Beja (ed) *Virginia Woolf: To the Lighthouse*, London: Macmillan, 66-73.

분석 텍스트

원본

Woolf, Virginia (1927) *To the Lighthouse*, New York: Harcourt

번역본

- T1. 버지니아 울프 (2003) 『등대로』, 박희진 옮김 서울: 숲.
- T2. 버지니아 울프 (2013) 『등대로』, 최애리 옮김 파주: 열린책들.
- T3. 버지니아 울프 (2014) 『등대로』, 이미애 옮김 서울: 민음사.

[Abstract]

**Translation of the Interior Narrative:
Virginia Woolf's Free Indirect Style in Korean**

Jung, Ha-y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ree different Korean translations of Virginia Woolf's novel *To the Lighthouse*, with a focus on the author's distinctive free indirect style.

Based on a research model created by Charlotte Bosseaux's corpus analysis of French translations of Woolf's novels, the corpus for this study examined 117 examples of free indirect style passages from *To the Lighthouse*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which revealed that the three translations showed similar ratios of homogenization and that the translation strategies they adopted in their attempts to either faithfully reflect the free indirect style or homogenize were closely related to the grammatical limitations of rendering the spoken voice in Korean.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explores and offers new possibilities for rendering free indirect style in Korean, centering on syntax, cadence, diction and lyrical devices, which, in turn, will also contribute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as a literary language.

▶ Key Words: free indirect style, modernist novel, interior narrative, literary translation, English-Korean translation

정하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junghayun@ewha.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서사미학, 번역의 미학적 지평

논문투고일: 2015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24일